

편집 및 발행인 : 김종덕 · 발행처 :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
총괄 : 김동환 · 감수 : 이연경 · 전화번호 : 051-797-4780 · E-mail : kdong@kmi.re.kr

Contents

> 유럽 물류 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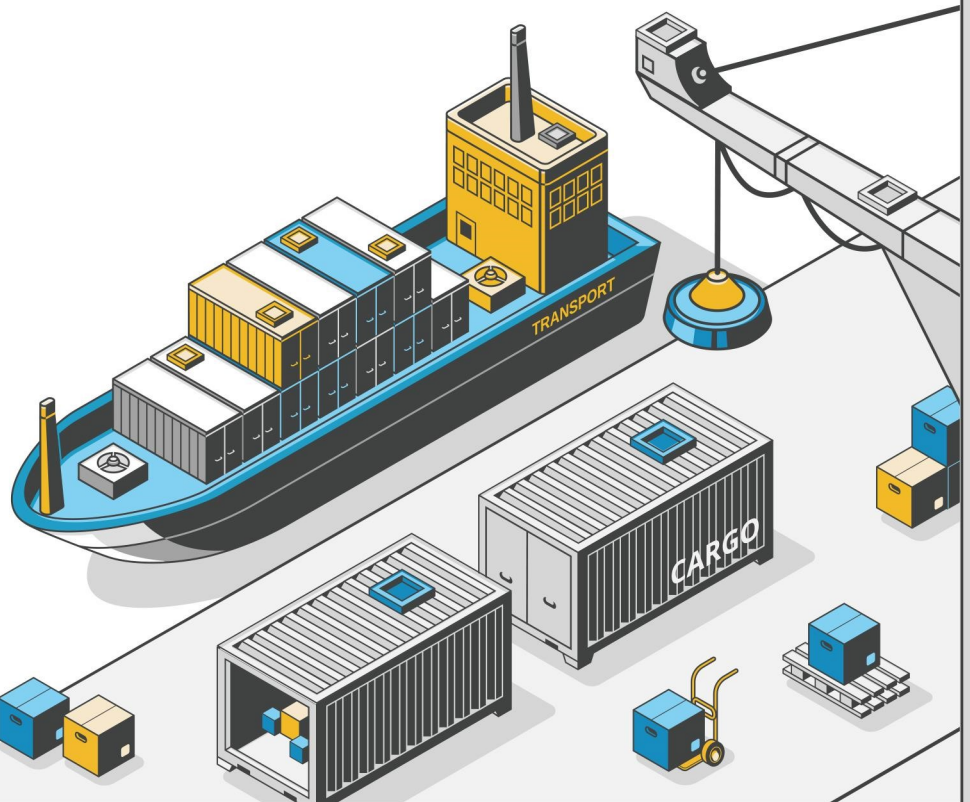
- 우크라이나, EU와 물류협력 체계 구축 강화
- 그단스크항, 물동량 지속 증가해 유럽 내 주요 수출입 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

> 미주·중남미 물류 시장 동향

- 美 '컨' 수입 물동량, 서안→동안 이동 추세 지속 전망

> 공지 사항

- 『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』 모집 공고
- 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비스 안내



우크라이나, EU와 물류협력 체계 구축 강화

- ▶ 우크라이나 Denys Shmyhal 총리는 2월 11일 내각회의에서 EU와 수출입,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물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함
 - 우크라이나 정부는 EU와의 주요 협력 분야로 운송 비자 면제, 국경 인근 인프라 개선, 공동 세관 운영 및 국경 통제 등을 핵심 사업으로 제안함

우크라이나 Denys Shmyhal 총리 내각회의



자료: <https://odessa-journal.com/>(검색일: 2025.02.12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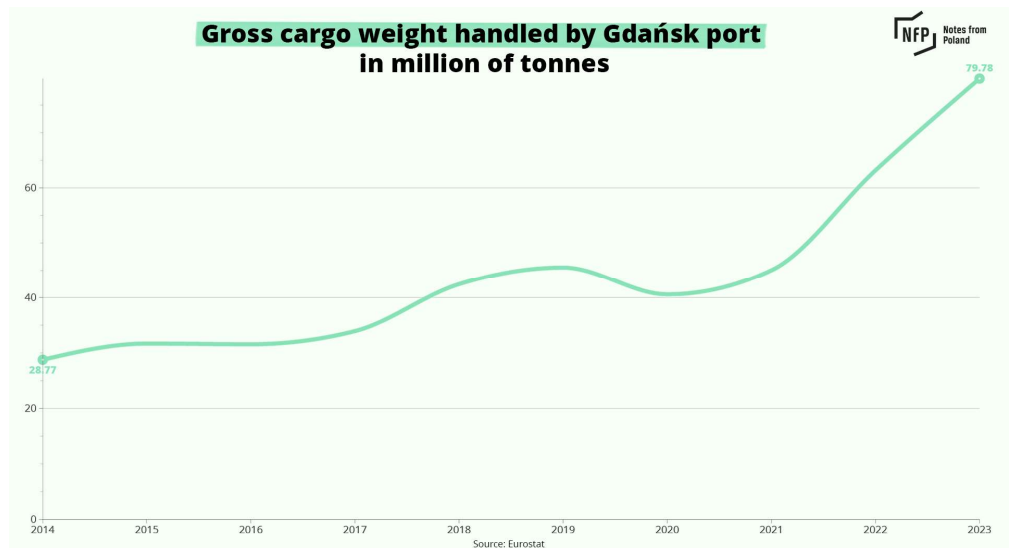
- ▶ 운송 비자 면제 협정은 EU와의 무비자 운송 제도로서 우크라이나 운송업체는 EU에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EU와 본 협정을 체결함
 - 현재 본 협정을 장기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노력하고 있으며,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
 - 특히 우크라이나 수출의 60%는 EU가 차지하고 있으며, '24년 우크라이나 도로 운송으로의 수출은 147억 달러 규모로 이는 '23년 대비 5% 증가함
- ▶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경 인프라와 검문소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'30년까지 국경 검문소 29개를 업그레이드하고 17개를 신설할 것을 발표함
 - EU와 공동 세관 및 국경 통제를 시작할 예정으로 올해 우크라이나-폴란드 국경에서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할 예정으로 현재 유럽위원회와 필요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임
 - 28개 국경 검문소에서 운영 중인 eQueue 시스템은 '22년 후반에 출시된 이후 약 170만 건의 국경 통과를 지원했으며 추가 개선이 계획되어 있음을 밝힘

- ▶ 우크라이나 해상 회랑은 운영 1년 반 동안 1억 톤 이상의 화물을 53개국으로 운송했으며, Denys Shmyhal 총리는 흑해가 다시 우크라이나 수출의 관문이 되도록 정부는 오데사와 다뉴브강을 따라 항만 인프라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
- ▶ 우크라이나는 ECA(Export Credit Agency)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수출업체에 200억 파운드를 지원했으며, 올해는 현재까지 15억 파운드를 지원함
- ▶ Denys Shmyhal 총리는 본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힘
 - 이는 'Made in Ukraine' 정책의 일부로서 관련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함

그단스크항, 물동량 지속 증가해 유럽 내 주요 수출입 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

- ▶ 그단스크항의 물동량 처리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내 5번째로 많은 물동량 실적을 달성하는 등 핵심 항만으로 성장하고 있음
 - 지난 2023년 기준 그단스크항이 로테르담항, 안트워프항, 함부르크항 등 유럽의 핵심 수출입 항만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물동량 처리 실적을 기록하는 등 물동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 - 유럽 항만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그단스크항의 '23년 물동량 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26% 증가해 약 8,000만 톤에 달했으며, 유럽 주요 항만별 순위도 10위('22년)에서 5위('23년)로 큰 폭으로 상승함
 - '23년에 이어 올해 또한 곡물을 비롯한 '컨' 화물, 에너지 품목 등을 중심으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해 그단스크항의 물동량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- ▶ 그단스크항의 물동량 증가 및 지속적인 성장은 러-우크라 전쟁 이후 군사적 지원 및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크게 반영됨
 - 그단스크항은 러-우크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발트해를 중심으로 미국과 카타르의 LNG 공급, 우크라이나의 구호물품 및 군사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주요 물류거점으로 활용도가 증가함
 - 또한 러-우크라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항만물류 관련 인프라 파손 및 공급 부족으로 곡물 관련 물동량 대부분이 그단스크항으로 이전되면서 곡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
 - 이에 그단스크항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유입 및 재건 관련 건설 기자재 운송 지원 등으로 물동량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

그단스크항 물동량 실적 변화(2014-2023년)



자료: <https://notesfrompoland.com>, (검색일: 2025.02.19.)

- 러-우크라 종전에 따른 재건 사업 및 동유럽 시장의 제조 인프라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단스크항의 물동량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 -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러-우크라 전쟁에 대한 종전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심의 재건 사업 진행시 그단스크항의 수요 및 활용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
 - 또한 폴란드, 헝가리,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생산인프라 구축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차전지 및 자동차 관련 수출입 물류거점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 - 이에 그단스크항은 향후 동유럽 시장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신규 곡물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며, 항만 연계 철송 및 도로 개발, 항만 인근 물류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대를 통해 물동량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

유럽 주요 항만 물동량 순위 비교(2024년 1~9월)



자료: www.porteconomics.eu, (검색일: 2025.02.19.)

美 '컨' 수입 물동량, 서안→동안 이동 지속 확대 전망

- ▶ 미·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아세안 및 인도발 수입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 동부 항만의 물동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
 - 과거 미 서안은 아시아발 수입 물동량의 핵심 물류거점으로서 미 전체 수입 물동량의 80%를 처리했으며, 이 중 대부분이 중국발 물동량으로 약 50% 이상을 차지함
 - 하지만 해당 수입 비중 및 구조는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를 시작으로 공급망 다각화, 단일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축소, 운송경로의 다변화 등으로 크게 변화하기 시작함
 - 특히 對미 중국 시장점유율 및 물동량은 '18년~'23년 간 연평균 3% 감소한 반면에 아세안 및 인도는 8% 증가하면서 동부 항만의 수입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인도의 경우 '23년 수입 물동량의 약 70%를 미 동안 항만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

2023년 미국 '컨' 수입 물동량 입항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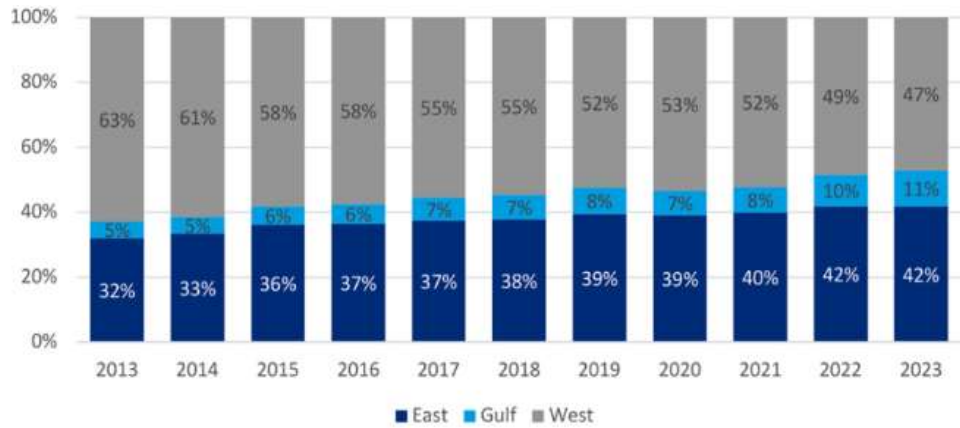


자료: US Census Bureau, Oliver Wyman Analysis (검색일: 2025.02.10.)

- ▶ 그러나 홍해 사태, 대중 관세정책 강화 및 미 동부 항만파업 확대 등으로 지난해 미 서안 항만의 물동량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함
 - 미국 컨테이너 무역의 가장 큰 관문인 LA/LB 항은 과거 아시아발 수입의 60%를 처리했으나 '23년 수입 물동량 점유율이 47%까지 하락함
 - 그러나 '24년 하반기 홍해 사태로 선사들이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리드타임 단축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중점 항만을 미 서안으로 임시 조정하는 움직임이 다수 나타남
 -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중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 소매업체의 중국산 재고 비축으로 중국발 수입 물동량 증가와 더불어 1월 동부 항만파업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물동량 일부를 서안으로 이전하면서 지난해 미 서안의 수입 물동량 점유율이 49%로 증가함

- 이는 미 수입 물동량이 서안에서 동안으로 이동하는 최근 추세에 반하는 결과로 미 항만 수입 물동량 구조의 유연성이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보여짐

미국 동·서안의 아시아발 '컨' 수입 물동량 점유율 변화(2013-2023)



자료: US Census Bureau, Oliver Wyman Analysis (검색일: 2025.02.10.)

▶ 글로벌 공급망 이슈 지속 발생으로 물동량 흐름의 단기적인 변화 등은 나타날 수 있으나, 지난 10년간 지속된 아시아발 수입 물동량의 미 동안 이동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- 미 동안 항만은 서안 대비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동부 항만 이용 시 철송 및 트러킹 등 내륙 운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, 시간 및 비용 절감의 이점이 있음
- 또한 최근 선박의 대형화로 마이애미, 사버나, 찰스턴 및 뉴욕/뉴저지 등 동부 항만 중심으로 기항 하는 선대가 증가하면서 서안에서 동안으로의 물동량 이동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음
- 인구 밀집 지역과의 근접성, 대형 선박 수용을 위한 동부 항만의 용량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인 서안의 병목현상으로 걸프 연안 및 동안으로 향하는 선적 점유율의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



공지사항

『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』 모집 공고

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

2025. 2. 17 | 월 | 09:00
3. 14 | 금 | 18:00



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「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2025년도 본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| 사업 개요 |

①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

사업 내용
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·분석 비용 지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인수합병형(현지기업 M&A 및 지분투자) ② 시설투자형(물류인프라 투자 및 확보)
지원내용
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기업 등을 통한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지원금액
최대 1억원 내 조사비용의 50% 지원

② 해외시장 조사·컨설팅 지원 사업

사업 내용	
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 내 물류프로세스 및 공급망 진단·분석·설계, 시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	
지원내용	
해외진출 및 시장조사 등을 위한 직접비용(인건비, 현장출장비, 컨설팅비 등) 지원	
지원금액	
· 물류기업 단독 수행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% 지원	· 화주-물류기업 컨소시엄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% 지원

| 제출방법 |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www.kmi.re.kr)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제물류 정보포털(withlogis.co.kr) 공지사항에서 공고문과 양식을 다운받아 제출

| 문의 |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
김동환 센터장 T 051-797-4913 E kdong@kmi.re.kr
성현정 전문연구원 T 051-797-4648 E hjsung@kmi.re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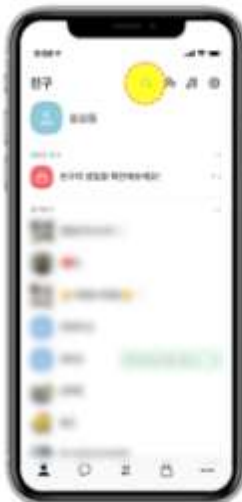
KMI International Logistics Weekly

『국제물류 정보포탈』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서비스 안내



친구 추가 방법

1. 카카오톡 메인화면 상단 친구 검색



2. '국제물류 정보포탈' 검색



3. 친구추가 버튼

